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2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4월 7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기획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전국에서 들려오는 봄기운의 승리 소식

최근 노조파괴 사업장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먼저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보쉬전장의 정근원 전 지회장의 해고 소송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되었다. 창조건설팅이 개입하여 불법적으로 노조파괴를 기획하였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성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작년 6월 복귀 후 재해고 당한 11명의 조합원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경주 발레오만도에서도 현장직의 과반수 이상을 조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포항의 진방스틸의 해고자도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역사는 우리에게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일깨워준다. 물론 당장은 거짓과 불의가 승리하고 이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다만,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은 주체들의 노력이다. 거짓과 불의에 대항해 싸우는 주체들이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면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시간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지금 노조파괴 사업장이 딱 이렇다.

2년, 3년이라는 시간동안 금속노조를 굳건히 지켜온 조합원들의 힘이 진실을 밝히고 있다. 현장 안팎에서 끊임없이 노조파괴의 문제를 제기한 덕분에 긴 시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희망버스까지 만들어냈고, 법원으로부터도 의미있는 판결을 끌어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들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고 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다. 정말 창조건설팅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나? 노조파괴한 적 없다고 장담하더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나?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지고 물러날 준비부터 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더 강하게 부딪치자!

분위기는 넘쳐오고 있다. 유성, 보쉬전장, 콘티넨탈자본의 노조파괴 범죄가 밝혀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남은건 현장 조합원들의 움직임이다. 4년의 시간이 걸린 발레오만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교훈삼아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자. 조합원들이 움직이는 순간 노조파괴는 거기서 끝난다. 주저하지 말자.

노조파괴 범죄 특검 실시하라!

콘티넨탈에 불어온 지역연대의 힘

4일(금) 부강에서 열린 콘티넨탈지회 연대주점은 지역 동지들의 연대가 빛난 자리였다. 많은 동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를 실천해주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늦은 시간까지 많은 동지들이 함께 했다.

보쉬전장지회의 조합원 2명은 평소 같고닮은 색소폰 연주로 주점의 첫 시작을 열어주었다. 야간근무 출근을 앞두고 연대주점에서 자신의 특기를 통해 연대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지부는 콘티넨탈 조합원들의 투쟁 모습을 모아 영상을 선물했고, 지역의 동지들은 영상에서 응원 메시지를 통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훈훈하게 시작한 연대주점에는 충북, 충남, 대전을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동지들이 함께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빛난 이들은 콘티넨탈 조합원들이었다. 주방에서 홀에서 직접 일하며 연대 동지들을 맞았다. 직접 김밥도 만들고, 안주도 만들고, 서빙도 보면서 연대온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늦은 시간까지 조합원들이 모두 남아 주점을 함께 정리하는 모습은 끈끈하게 금속노조를 지켜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주점은 콘티넨탈자본이 지회 간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벌금 마련을 위해 준비한 자리였다. 자본은 탄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지회 조합원들은 더 똘똘 뭉치고, 지역의 연대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5년만의 출근, 포기의 순간 동지들이 있었다

10일(목) 경기지부 포레시아지회 조합원 열아홉명이 출근한다. 2009년 5월26일 정리해고된 지 4년 11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포레시아 노동자 열아홉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5년간의 정리해고 철회 투쟁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병운 포레시아지회 조합원은 “복직하라고 회사가 애길 했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난다. 5년동안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투쟁하다보니 출근한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병운 조합원은 “현장 안에서 싸운 일곱 조합원이 더 고생했다. 이 조합원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 이런 판결도 가능했다”며 “현장에서든 해고자들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좋아한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현장 동지들을 더 보호해줘야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하나같이 경기지부와, 금속노조, 지역 동지들의 연대가 없었으면 승리하지 못했을거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 조합원은 “혼자 싸웠다면 5년 동안 싸우지 못했을 거다. 대법원 판결 나고 문 열고 나와 동지들 얼굴을 보는데 모두들 정말 고마운 얼굴들이더라”고 말했다. 이병운 조합원도 “해고되고 생계 때문에 정말 어려웠다. 지금 생각해도 울컥한다”며 “경기지부 동지들이 결의해서 해고 조합원들에게 30만원씩 지원해줬다. 우리에게 정말 큰 돈이고 큰 힘이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국지엠 사무직, '성과중심 임금' 폐기 '연공급' 도입

한국지엠 사무직 노조와 회사가 기존의 성과중심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성과중심 연봉제가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했다는 이유다. 이는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지엠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중심 연봉제를 도입했고, 2003년에는 전체 사무직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금차별과 조직문화 파괴, 업무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재수 한국지엠 사무지회 교선실장은 “같은 차장 직급이라고 해도, A는 3,400만원을 받고 B는 8,400만원을 받는 등 임금격차가 심했다. 거의 5천 만 원의 차이가 났던 셈”이라며 “심지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원이 10년차 보다 임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연봉제가 도입된 후, 팀장이 혼자서 사원을 평가하고 임금 수준을 판단했다. 업무 평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고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동료간의 불신과 지나친 경쟁이 심화됐고, 업무 조정이나 협력도 이뤄지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조직문화가 훼손됐고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도 심화됐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4.2 청주시 노인병원 연대_코스파지회장>



<4.3 콘티넨탈지회 출근 투쟁>



<4.4 콘티넨탈 연대주점_보쉬전장 조합원>



<4.6 코오롱 불매 산행>